

(가제) 베이비시터

1. 출근길 몽타주

(집) 아침. **민준(8, 남)**의 옷을 입히고 있는 **민서(18, 여)**의 모습
(지하철) 민준의 손을 잡고 서 있다
(탑골공원) **박할머니(70대)**에게 민준의 손을 쥐어드린다
(빵집) 일하는 모습. 남은 빵을 챙긴다.
(탑골공원) 점심. 박할머니에게 챙긴 빵을 전달한다
(편의점) 저녁. 알바하고 있는 모습. 유통기한 다 된 음식을 챙긴다.

2. 밤. 탑골공원-벤치 아래

챙겨놓은 편의점 음식들이 담긴 봉지를 건네는 민서의 손. 촌스러운 눈화장을 한 박할머니는 봉지를 받더니 뒤적이며 보름달 빵을 꺼낸다.

박할머니 (뜯어 먹으며) 오늘은 뭐가 많네~
민서 저기.. 할머니

민준은 공원 구석에서 자신의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민서 혹시 이번주부터는 주말도 가능할까요?
박할머니 주말?
민서 (조심스레) 네. 주말 오전 알바를 맡게 돼서요.
박할머니 주말은 놀러가야되는데~ 다른 할머니 알아봐바~
민서 (다급) 저녁까지도 챙겨 드릴게요.
박할머니 저녁? (고민하다) 오전만인거지?
민서 (고개 끄덕) 네네.

가방을 멘 민준이 와아아 하면서 까꿍대며 달려와 민서의 다리에 붙는다. 한 할아버지 **강할아버지(74)**가 장난을 치며 민준을 쫓아왔던 것. 할아버지는 왠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은색 양복에, 밤인데도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한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 다른 할아버지들과는 다른 간지가 난다. 민준을 잡으려던 할아버지는 민서와 부딪힐 뻔 한다.

박할머니 아이고 오빠. 조심 좀 해요. 여기 아가 누나 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고.. 할아버지는 뒤로 물러서더니 지팡이로 툭툭 민서의 발꿈치를 건드려본다.

강할아버지 아가 누구?

할아버지는 민서의 사선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민서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까만 선글라스에 비춰져 보인다.

민준 할아버지 우리 누나야.

박할머니 호호 민준이가 우리 오빠랑 잘 놀데~

강할아버지 누나는 몇 살?

민서 저... (머뭇) 스무...

민준 열여덟살! 민주니랑 열살차이!

강할아버지 아~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쓰겠네

할머니는 빵을 다시 봉지에 집어넣고 할아버지 팔을 잡는다.

박할머니 오빠! 가자! 그래 우리 갈게~ 내일 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고 멀어진다. 민준이 누나 옷을 잡아당긴다.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민준. 민서가 허리를 약간 굽혀주면,

민준 (속삭이며) 할매 남자친구인가바.

다시 이들을 보는 민서.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걷는 할아버지가 재밌는 말을 하는지 할머니는 계속 웃는다.

3. 밤. 길거리.

어두운 길거리를 걷고 있는 민서와 민준. 민준은 따발따발 수다를 떨고 있다.

민준 할부지가 싸움갈쳐쵸쵸 압 압 하압! 태!뀨!도!

민서 하루종일 같이 있었던거야?

민준 할부지가 원래 막 사람들 때리고 싸움하고 하는..

민서 (놀라며) 조폭?

민준 아니... 그... 지켜주는.. 거...경..

민서 경호원?

민준 응! 경호원이었대!!

민서, 과연 그럴까?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민준 나도 누나 지켜줄거야 압!

민서 ㅎㅎ 경호해줄거야?

민준 응! 엄마가 누나 잘 지켜주래써

민서 ...

민준 민주니가 할버지한테 잘 배울게! 압! 압! 발차기!

민준은 한 손으로는 민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펀치와 발차기를 한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둘의 뒷모습.

4. 실내. 집. 밤.

띠리링- 문이 열리자마자 양말바람의 민준이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가버린다. 뒤이어 민서가 들어오는데 민준의 신발을 손에 들고 있다. 민준의 신발을 신발장에 내려놓는 민서. 아빠의 콘크리트 가루 묻은 등산화가 보인다. 얼른 앉아 자신의 신발도 벗는다.

거실에는 소주, 맥주병이 나뒹굴고 있다. 구석에 앉아있는 **민서 아빠(40후반)**, 더러운 카고바지에 심지어 점퍼까지 벗질 않고 하루종일 막일 한 차림새 그대로다. 현관으로 다가오는 아빠. 민서는 서둘러 신을 정리하고 벌떡 일어나 현관 가까이에 있는 방으로 향한다. 하지만 아빠가 이미 방문 앞을 막고 있다.

아빠 (방문을 돌리며) 민주나

문이 안 열린다.

아빠 아빠한테 인사도 안하냐 이자숙

민서 ...비켜요.

아빠 아빠가 인사 좀 하겠다는데

민서 (눈을 내리깐채) 비키라고요.

아빠,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탕 던져버린다. 꿈쩍 놀라는 민서. 바닥만 쳐다보고 서 있다. 아빠는 번쩍 손을 들고, 민서가 눈을 꼭 감는데... 탁! 하고 아빠가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한다. 민서, 가만히 서 있는데 꼭 췌 주먹이

파르르 떨린다.

아빠 씨발. 개새끼.

아빠는 계속 자기 머리를 때리고 민서는 바닥만 보며 꼼짝않고 서 있다.
민서의 어깨가 파르르 떨린다. 아빠는 거실로 가더니 벽에 쿵쿵 머리를 박는다.

아빠 아빠가! 아빠가!

그런 아빠를 보는 민서.

민서 (조용히) 민준아 문 열어

문이 열리면 민서가 획 방 안으로 들어가고, 딸깍 방문이 잠근다.

5. 실외. 탑골공원-벤치 아래. 낮/밤

(낮) 빵 봉지를 들고 공원 나무 아래 벤치로 온 민서. 그런데 아무도 없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민준이와 할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좀 더 멀리 돌아보지만 없다.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아 잠시 기다리는 민서. 시계를 보고는 다시 일하러가기 위해 몸을 돌린다.

[Insert]

편의점 알바하는 민서

[Insert End]

(밤) 편의점 봉지를 들고 벤치쪽으로 온 민서. 그러나 여전히 민준이 보이질 않는다. 봉지를 벤치에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민서. 민준아! 하고 불러보기도 하는데 밤 공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다. 정자로 가는 민서.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

민서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8살 남자아이 보셨어요? 맨날 오는데..

수다를 떨던 할머니들, 시큰둥하게 민서를 쳐다본다.

할머니1 너 그.. 박할매한테 맨날 말기는 애기...?

민서 (고개 끄덕끄덕)

할머니2 (고스톱 치며) 니 애당가? 하이코 썼네.
 할머니4 아싸 고도리!
 할머니3 오메 망측해라. (패를 내려놓고는 민서를 힐끗 보며) 요즘것들은
 피도 안 말라도 참..
 민서 아니.. 제 동..
 할머니1 내 차렌가? 그 애기 오늘 오전엔 봤던거 같은데..
 민서 어디 갔나요?

민서, 표정이 조금 밝아진다.

할머니4 (다른 할매들에게) 아니 애 애가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맞지?
 봐줄 사람 없어서 박할매한테 맡기잖아.
 할머니2 아 동생이여?
 할머니3 소녀가장이구만

민서, 할머니1의 대답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지만 다른 할머니들의 대화가 불편하다.

민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박할머니랑 어디 갔나요?
 할머니1 내가 점심때 잠깐 밥 먹으러 갔다 왔단 말이지...

나머지 할머니들은 화투에 집중한 채 계속 대놓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할머니4 에잇. 먹을게 없어~ 먹을게..
 할머니2 썩썩..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일만 하고 박할매 먹을거
 가져다 주는구만.
 할머니1 박할매는 거 바람기가 있어
 할머니3 (깔깔) 그래서 강아저씨를 꼬셨나
 할머니2 강아저씨 진짜 흰칠하데~ 어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고
 할머니3 흰칠한걸 어따써 눈이 안보이는데
 할머니4 아니 그래도 그 강아저씨, 지금 계속 박할매 빗진거
 갚아주고 있대잖아.
 할머니2 오메 진짜? 원일이라.

할머니들, 깔깔거리며 웃는다.

민서, 입술을 꼭 문 채 킁킁이 서서 대답을 기다리다가

민서 제 동생 보셨냐구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정자. 할머니들이 민서를 쳐다본다.

할머니1 몰라. 기억 안나. 늙은이들이라.

할머니2 (웃으며) 점심때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난다.

할머니4 (깔깔 웃다가) 오메 그러고보니 아까 낮에 구급차 왔었잖어

할머니3 누가 실려갔데? 언니 봤어?

할머니들, 다시 화투에 열중하며 다른 주제로 옮겨진다.

주먹을 꼭 쥔 채 서 있던 민서. 얼른 뒤돌아 정자에서 멀어진다.

다시 공원을 여기저기 살피는 민서.

그때 공원 한쪽 구석에서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려온다. 그쪽을 자세히 보면.. 강할아버지가 깔끔한 양복 패션으로 벤치에 앉아있고 그 앞에 할아버지 1,2,3이 강할아버지를 둘러싼 채 서있다. 위협받는 듯한 분위기. ‘아이가 어쩌고’ 하는 것 같은 대화가 들린다. 갑자기 할아버지1이 으박지르듯 강할아버지의 머리채를 확 붙잡고 뭐라고 외치고.. 민서는 강할아버지를 도와야 하나 싶어 일어나려는 찰나..

민준 누나아!

민준, 아이스크림을 물고 오고있다.

민서 민준아! 어디갔었어!?

민준 할부지가 아쭈크림 돈조써

잔돈을 내미는 민준에게서 돈을 받으며 민서는 강할아버지쪽을 보는데.. 강할아버지, 놀랍게도 지팡이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할아버지1의 팔을 탁 치더니 탁탁탁 지팡이를 재빠르게 휘둘러 순식간에 제압시킨다. 할아버지2,3이 덤벼들자 강할아버지는 그들도 지팡이로 탁탁 공격해 제각각 허리, 다리를 움켜잡으며 넘어진다. 놀라는 민서.

민서 (시선은 할아버지에게 고정된 채) 민준아... 박할머니는 어디갔어?

민준 (아이스크림에 집중한 채) 할머니 가써

강할아버지, 자신을 위협하던 할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잠시 후 할아버지 1,2,3은 주춤거리더니 후다닥 달아나버리고.. 강할아버지는 웃을 톡톡

털며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획 민서쪽을 쳐다본다. 놀라며 얼른 시선을 거두는 민서.

민서 (작은 소리로) 민준아. 그 할아버지 장님 맞지?
민준 (아이스크림에 집중한 채 고개 끄덕끄덕)
민서 (여전히 작은 소리) 장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켜줬대?
민준 (속삭이며) 사고나기 전에는 다 보였으니까 싸움을 잘 했겠지.
누나 근데 왜 작게 말해?

민서,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본다. 민서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썬글라스.
민서는 얼른 민준의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난다.

민서 가자.

6. 실외. 집 가는 길. 밤.

민준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민서. 생각에 빠진 표정.
민준이 민서의 손을 흔들흔들 거리며 재잘재잘 수다를 떠다.
그러다 갑자기 잠깐 말이 없어지더니..

민준 누나도 엄마 보고 싶어?
민서 응. 당연하지.
민준 오늘.. 엄마 보러 갔어!
민서 응?
민준 오늘 할부지랑 도깨비 잡으러 갔거든!!
민서 도깨비?
민준 도깨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도깨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민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민서는 민준을 잡아 세운다. 쪼그려 눈높이를 맞추고..

민서 민준아. 그래서.. 할아버지랑 어디 이상한데 간거야?
민준 (노래 계속 부르며 고개를 젓는다) 뵈니까 비밀까~
민서 할머니는 오늘 없었고?
민준 헤딩을 해버릴까!!

그때 민서의 휴대폰 벨이 울린다. 수신자 아빠.

하셨단말이에요. 오늘도 안 계셔서 하루종일 사장님들
눈치보느라고...

강할아버지, 말이 없다. 민서는 눈치를 좀 보다가

민서 할아버지가 내일 오전에 좀 봐주세요.

강할아버지 ...?

민서 제가 점심 저녁 두 배로 빵 갖다 드릴게요.

민서, 선글라스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의 눈을 보려고 하며 부탁한다.

9. 실내. 빵집. 낮.

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10. 실외. 탑골공원. 낮.

일을 마치고 빵 봉지를 들고 공원 벤치로 온 민서. 그러나 이번에도 벤치에 아무도
없다.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민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탁탁탁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린다. 그 쪽을 쳐다보면, 저 멀리 공원 코너를 돌면서 강
할아버지가 혼자 바쁘게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다. 벌떡 일어나는 민서. 할아버지를
부르는데 들리지 않는지 할아버지는 멀어진다. 할아버지를 쫓아간다.

11. 실내. 장례식장. 낮.

도착한 곳은 병원 옆 장례식장. 할아버지가 한 방으로 들어간다. 약간 거리를 두고
뒤따라 들어가는 민서. 그 방 안에는 제사상이 간단히 차려져 있고 유골함이
대여섯개 올려져 있는데 2018-186, 2018-187, 2018-188, 2018-189 등의 숫자가 유골함
곁에 쓰여 있다. 대체적으로 한산하다.

직원 어떻게 오셨나요?

강할아버지 박인춘씨가 이쪽으로 옮겨졌다해서..

직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강할아버지

직원 괜찮아요. 어차피 무연고자 장례 처리 된거라 이제 누가 오셔도
넘기지 않아요. 뭐 저한테 말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박인춘... 189번... 여기 그냥 적어만 주세요.

직원, 서류를 건네며 강할아버지에게 말하다 보니 장님인걸 깨닫는다.

직원 아.. 제가 그냥 쓸게요. 뒤에는.. 손녀분이신가요?

약간 떨어져서 지켜보던 민서. 직원의 말에 놀란다. 강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무의미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민서,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어 입을 연다.

민서 손녀딸 아니에요.

(Cut to) 2018-189라고 번호 적힌 유골함 앞에 앉아 있는 민서와 할아버지.

민서 (충격) 박할머니가 어떻게요...? 건강해보이셨는데..

강할아버지 심장발작이었어. 119 불렀는데 뭐.. 소용이 없더라고.

민서 (숫자를 보며) 저 189는 뭐예요?

강할아버지 무연고자 번호야.

민서 ...

강할아버지 올해 죽은 가족 없는 사람들 번호.

민서 ...할아버진 진짜 박할머니 남자친구였어요?

강할아버지, 허허 웃는다

강할아버지 박여사가 내 처제야 처제.

민서 ...?

강할아버지 내 아내가 박할머니 언니라고.

민서 그럼.. 가족이잖아요.

강할아버지 가족이라도 둘이 평생 인연 끊고 살았으니 뭐.. 거의 남남이었지.
근데 후회스러웠는지 유언에 좀 찾아봐달라고 하더라고..

민서 할아버지 아내도.. 돌아가셨어요..?

강할아버지 (고개 끄덕)

민서 ...

강할아버지 뒤늦게 공원에서 찾았는데.. 힘들게 살았더라고... 몸도 안좋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도 뭐...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서..

민서 따지고보면 할아버지는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요.

강할아버지 그런게 뭐 따로 있나.. 그냥 돕고 도우면 가족인거지.

민서, 번호가 붙은 유골함을 쳐다본다. 185, 186, 187 등의 숫자들이 적힌

유골함들이 나란히 사이좋게 위치해 있다.

민서 (갑자기) 민준이!! 할아버지 민준이 어딴데요?

강할아버지 응? 민준이? 만났던거 아니었어? 아까 진작에 갔는데? 누나가 바로 앞에 와있다고 해서..

12. 실외. 장례식장 밖. 낮.

장례식장 밖 한쪽 구석. 민서 핸드폰을 끄는다. 미아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
강할아버지는 담배를 피고 있다.

민서 주말이라 접수 처리가 곧장 안 되나봐요

강할아버지 애가 어디 갔을지 예상되는 곳이라도 없어?

민서 (어색해하며) 저는 하루종일 일만해서... 근데 딱히 민준이가
갈만한 곳이나 새로운 아는 곳이 없을텐데.. .

강할아버지 그러고보니.. 옛그제 민준이랑 와이프 무덤에 다녀왔었어.

민서 ...네?

(Flash back) 병원에서 죽은 박할머니를 확인하고 나오는 강할아버지. 병원 의자에
민준이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강할아버지를 뒤따르기 시작한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민준.

강할아버지(N) 몰랐었는데 민준이가 계속 따라왔더라고. 그날 난 와이프
무덤에 갔었거든. 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민준이가 박할매도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까지 쫓아온거야. 뭐하는데냐고
묻길래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라고 말했었어.

민서(N) 민준이 그러고보니 엄마 보고싶다고 엄마한테 간다고
요 며칠 난리였는데...

민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한다.

민서 무덤에 갔나보다..!

12. 실내. 이동중. 오후

이동 중인 강할아버지와 민서.

저번에 할아버지 위협하던 사람들 누구냐 물음. 박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이 박할머니의 형부인걸 알고 이제 박할머니 대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헐박하고 난리피우는 것이었음. 그래서 혼내줬다고 함.

민서, 아빠에 대해 이야기 함. 엄마의 사고 후로 자책, 자학하는 아빠.
강할아버지는 아빠가 자기를 학대할 때 지팡이로 아빠가 스스로를 때리는 걸 막는 법을 알려줌. 연습해보는 민서.

13. 실외. 무덤. 해질녘

무덤에 도착한 둘. 얼른 강할아버지 아내 무덤을 찾는데...
민준이 그 앞에 앉아 있다.

민서 민준아!!!

15. 실외. 집 가는 길. 밤

집 가는 길. 항상 민준과 걷던 길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셋이 걷고 있다.
골목 모퉁이, 민서가 걸음을 멈춰선다.

민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준 (꾸벅 인사) 안녕히가세요~
강할아버지 힘내고! 용기내고!

할아버지 지팡이 소리와 함께 멀어진다.

16. 실내. 집. 밤.

쿵- 쿵-
벽에 머리를 박고 있는 술취한 아빠.
민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차림으로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간다.
민서, 비장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본다.
아빠는 민서를 신경쓰지도 않고 머리를 박고 자신의 볼을 때리고 있다.
민서, 신발장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 잡는다. 아빠 뒤에 가서 우산으로 노인들이 젊은이들 꿀밤 때리듯 아빠의 머리를 일단 한 대 때린다. 아빠가 다시 자해를 시작한다. 그때마다 민서는 우산으로 강할아버지에게 배운 약점 포인트들을 찌른다. 결국 최후의 한방으로 아빠에게 볼 펀치를 날리는 민서.

민서 아빠 이제 정신차려요.

17. 실내. 빵집. 낮.

빵을 정리중인 민서. 전화벨이 울린다. 확인해보면 아빠다. 지겹다는 표정으로
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다가 멈칫하는 민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시늉을
하며 밖으로 나간다. 폰이 계속 울린다. 전화를 받는 민서.

민서 ...

아빠 민서야!

민서 ...

아빠 (울먹) 미안하다. 아빠가.. 매번 미안해서 미안하고...

민서 ...

아빠 고마워.

18. 실외. 공원. 밤.

퇴근한 민서. 공원 구석의 늘 가던 벤치로 간다.
민준이 할배와 뛰어놀고 있다. 씨익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민서.

-끝.